

여수시, 100세 시대 어르신 돌봄 '앞장'

민선 8기 '모든 시민이 잘사는 보편적 복지' 지향 건강 교실·치매 관련 서비스...맞춤형 프로그램도

여수시가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인 복지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여수, 소외된 계층이 없는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다.

우선, 보건진료소 28개소(육지 16·도서 12)에서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신체계측, 혈압, 혈당 검사 등)와 근력강화 운동, 보건교육, 웃음치료, 건강 상담, 건강상식 등의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서보건지소 6개소(화정·남면·삼산·연도·초도·개도)에서는 열 찜질과 간섭 흡인 저주파 치료, 적외선 치료 등 물리치료 서비스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르신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과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022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실버 건강교실과 취약지역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등의 '경로당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내·애(시전동)'도 운영하고 있다.

치매 관련해서는 여수시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진사업과 치매 치료관리(약제비) 지원사업, 치매 등록 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치매 조호물품(거주귀 등) 지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여수시가 소외된 계층 없는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가운데) 시장이 관내 경로당 합동생신잔치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여수시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개 유형 77개 사업에 9천23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전년 8천534명 대비 확대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들에 대해서는 안전지원과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 4개 분야 1

7개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 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천564명이 대상이다. 여수시노인복지관과 소라·문수·미평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309명(전담사회복지사 24, 생활지원사 285)의 수행 인력이 투입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부터 월 최대 20회 이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은 정기명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관내 총 2만5천여명의 어르신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 욕구에 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읍면단위 공공목욕장 운영 지원(분기당 500만원) ▲어르신(70세 이상)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이동노인대학 운영 등 별도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향사랑기부자 '최고 예우'로 모신다

고흥군, 고액기부자 이름 새긴 '고흥애훈전당' 제막식

고흥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중한 뜻을 영구히 간직하기 위해 '고흥애훈전당'을 조성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제막식은 지난 1일 고흥군청사 앞에서 울,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 향우회장과 군의회 의원,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애훈전당'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부자들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고흥애훈전당'은 군청 로비에 고흥군 515개 마을을 상징한 515개의 명판을 만들어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기고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조성했다.

또 지난 5개월 간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132명이 고흥애훈전당에 먼저 이름을 올렸고 명판에는 기부자의 희망지역과 금액별 색을 달린 메달도 함께 표기됐으며 최종 메달 색은 연말까지 합산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고흥애훈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기에는 청사 로비에 디지털기록관을 설치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5개월 동안 고흥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기부자들의 뜻을 영구히 기리고 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기부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재경고흥군향우회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했을 뿐

인데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게 돼 감격스럽다"며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고향 발전에 더욱 힘이 되도록 향우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고흥=최봉환 기자



장흥군, "축제 체질 바꾼다"...토론회 개최

지역 축제 현황 분석·관련 지자체 사례조사

장흥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축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군수가 주재했으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견인하기 위해 지역 축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현재 10여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축제가 지역단위 축제에 머물러 있고 시기별 분산 개최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먼저 관광 축제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지자체 사례조사를 거쳐 실무차원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시기별·계절별 통합축제 개최방안, 장흥 삼합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축제 개최방안, 문림의향 장흥 이미지에 걸맞는 문화제 개최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군은 논의된 의견·방안에 대해 별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축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노형욱 기자

보성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성료

도시민 8세대 10명 회천면 휴양마을서 임시 거주

보성군은 "최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하고 참가자 퇴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성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는 도시민 8세대(10명)가 입소해 지난 3월2일부터 3개월간 회천면 다향울림 휴양마을에서 임시 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텃밭 농사를 비롯해 농촌 일자리 체험, 지역 탐색, 체험 마을

지원, 지역 문화 탐방, 선배 귀농·귀촌 인 방문, 귀농·귀촌 교육 등의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회천면 취미 교실 '라인댄스 수업'을 통해 원주민들과 친목을 다지고 농작물 재배 기술 및 영농 정보 등을 교류한 참가자 부부 1세대는 보성군에서 본격적인 귀농 정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참가자 이 모씨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성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매료됐다"며 "보성군으로 귀촌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 생활해 보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귀농·귀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 귀촌 지원 센터(061-852-2282)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391)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임병연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1천838억 추경 의결

본예산 대비 2억3천만원 ↓ 황금산단 국고보조금 확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1천838억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의결했다. (사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최근 제135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황금산단 공공폐수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 1천841억원 대비 2억3천만원이 감소한 1천838억원(일반회계 435억원·특별회계 1천403억원)이다.

예산은 해룡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웹 방화벽 구입비 등



을 신규 편성했으며 노후 공용차량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등을 증액했다.

최병용 조합회의 의장(전남도의원·여수5)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단 부지가 한정돼 있으므로 고흥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민에게 널리 도움이 될 기업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선별해 유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숙경 위원(전남도의원·순천7)은 "국가산단 유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이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형석 위원(전남도의원·광양)은 "본예산 수립 시부터 사전에 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 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전남도내 1위 유지' 목표...연말까지 실적 제고 총력

화순군은 "최근 구북규 군수 주재로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량지표 74개와 정성지표 18개에 대해 지표별 연중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해 부서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군은 전남도내 종합 1위 유지를 목표로 추진상황 보고회 4회 개최, 정량지표 매월 실적 점검, 정성지표 담당자 1대1 컨설팅 등 실적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구북규 군수는 "군의 우수한 사례를 많이 발굴해 전남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화순군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위임사무, 정부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순군은 전남도로부터 각각 평가를 받는다.

화순군은 2023년(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시, 기업 러브콜... '투자유치 1번지' 급부상

상반기 8천500억 투자유치로 500여명 고용 창출

순천시가 한화, 포스코 등 글로벌 최첨단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투자 유치 1번지'로 급부상 중이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리튬솔루션(주)과 5천7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수천억대 투자 유치가 잇따르고 있다.

순천에 투자기업이 몰려드는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선과 호남선이 십자로 연결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돼 있고, 광양항·울촌항과 인접해 있어 남해안 교통·물류 전진기지 역할

을 하고 있다. 또한 순천대를 포함해 관내 4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첨단산업 인재를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정주 여건은 경영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진화 성장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5개 기업 8천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고, 500여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페이스 선두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에 이어 6천800억원 규모의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선



정은 대기업과 정부가 인정한 투자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최근 포스코리튬솔루션(주)와 5천7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사진)은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이차전지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순천이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순천=정기 기자